

사설

세상이 아름다워질 때는 겸손이 춤출 때

겸손은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수 없다. 겸손이 주유할 때 세상은 낙원이 될 수 있다. 법이 없어도 있는 것보다 더 질서가 잡힐 수 있다. 그야말로 세상은 향기로 가득 할 수 있다. 말이다. 겸손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힘도 들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도 필요 없다. 이렇게도 손쉽게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이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도 또한 겸손이다. 끝없는 욕심이 겸손을 먹어버리기 때문이다. 행사장에 가봐라. 잔치집에도 가봐라. 서로들 뒷자리에 앉으려고 난리들이다. 그래야 자신의 권위가 더 빛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산행을 하다가 만나서 사람에게 인사할 때 반갑게 받아주면 인사할 때 돌려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큰둥한 모습으로 받아먹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말할 때는 입에 계거품을 물어가며 장황성을 늘어놓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면 금방 시들해버리면서 조는 사람도 있다. 자신에게는 존칭을 써가며 인사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대충 하는 이도 있다. 남의 허물은 조알만한 것도 태산처럼 부풀려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도 자신의 큰 허물은 조알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때문에 이 세상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이 부족할 정도로 흔탁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도덕률과 종교가 있어도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때문에 수많은 교회와 사찰 등 성전이 생기고 또 생겨도 이 세상의 흔탁함은 결코 맑아지지 않고 더 탁해져가기만 하는가 보다. 이는 곧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그 어떤 방면에서도 자신을, 자기집단을 낮추려하는 자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때문에 날마다 아귀다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정치권에서도, 경제권에서도, 점점 문화와 예술을 논한다는 문화계와 예술계에서마저도 말이다. 어디 그뿐인가. 인간의 영혼을 달래주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종교계는 또 어떤가. 가끔씩 스님들과 신도들이 뒤엉켜 소림사의 결투를 보여주시는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바세계의 욕심이 그대로 사찰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대대로 상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구세력의 갈등으로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던가. 다른 곳도 아닌 종교계에서까지 이런 하극상의 행태들이 빚어질 때마다 절망을 봐야했다. 그들의 그런 모습들은 보통 인간들의 그것들보다 더 추하고 악해 보였다. 신을 빙자하면서 가장 하극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신자들에게는 변질변질한 설교를 하면서도 말이다.

오죽했으면 목회자 자신들마저도 자신들이 한 설교의 10%만 목회자 자신들이 지켜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곤 했겠는가. 물론 목회자도 인간이다.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구역질나는 모습들까지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명색이 신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회자들이 말이다.

만약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목회자의 길을 벗어나라. 그런 다음 법안들처럼 살라.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왜 발생하는가. 바로 겸양지덕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겸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하지만 겸손이 춤출 때 세상이 비로소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말이다.

“현대의 모든 철학이 직접, 간접적으로 이 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는 『존재와 시간』, 그 저자가 출세의 달인이었다니? 사실 이 표현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순수하고 진지한 철학자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하이데거가 독일 나치의 협력자였다면, 독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제부터 그의 족적(足跡)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기로 하자.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1889년-1976년)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강사로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일약 유명해진 것은 1929년에 발표한 『존재와 시간』 때문이었다. 이 작품은 너무나도 비범했다. 하이데거는 이 작품에서 지금까지 제기되어왔던 모든 철학적 물음들을 자신의 사유 세계 안에서 새롭게 걸러내었다. 그 때문에 당대의 철학적 문제들은 모두 쪼갬기로 전락하였고, 모든 형이상학은 마치 번갯불을 맞은 것처럼 새롭게 조명되어야 했다. 더욱이 구사하는 언어들마저 매우 독특하였기 때문에, 동시대인들에게는 그 저자가 매우 생소하고 낯선 존재로 여겨졌다. 그 책이 워낙 난해하여, 독일인들 사이에는 『존

강성훈 교수의 철학 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훈 철학다다미'



출세의 달인들-하이데거(1) 『존재와 시간』

재와 시간』은 과연 언제쯤 독일어로 번역이 이루어질까?” 하는 농담도 있었다고 한다.

이 작품을 헌정 받은 스승 후설(현상학의 창시자,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마저 놀라움을 넘어서, (너무 어려워) 실망감을 토로할 정도였다. 그만큼 하이데거는 이미 후설의 단순한 추종자를 넘어선,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왔으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탐구되지 않았던 '존재'의 영역을 건드려다 보니, 철학자들조차도 그의 진면목을 몰라보는 실수를 범하고 했다. 가령, 그 책을 탐독한 사

르트르는 그 영향을 받아 『존재와 무』를 펴냈다. 이 책은 실존주의 이론서로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훗날 그 책을 읽어본 하이데거는 “이건 내 철학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이데거의 진가를 알지 못한 것은 당시 독일의 교육부도 마찬가지였다. 하이데거 대신 다른 후보자를 정교수에 임명하려 했던 것이다. 이때 철학자 막스 셸러가 직접 장관을 찾아가,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임명한다면, 당신은 대대손손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협박(?) 겸 설득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기 했으며, 하이데거는 살아 있을 때 이미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

가라는 찬사를 세계 철학계로부터 받게 된다. 철학 저서 한 권이 그 저자를 일거에 '20세기 철학의 거장'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 책이 담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였을까? 우선 먼저, 하이데거는 어둠에 파묻혀있던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는 (일반 존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현존재, Dasein)의 분석이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현존재란 세계 내 존재이고, 염려(Sorge)이며, 죽음으로 향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죽음을 선취(先取)한 사람, 즉 현존재(Dasein)만이 타당한 일상인(日常人)으로부터 본래적인 자기에게로 되돌아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꾸려갈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한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 속에 매몰된 현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남은 생애를 보다 더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이 작품의 메시지가 당시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였던 것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채증은 '감시'가 아닌 '공존'의 시작입니다

경찰 채증은 단순한 촬영을 넘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기록'입니다.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2조는 채증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촬영·녹화·녹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집행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증에 대한 시선이 늘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시민들은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오거나 불필요하게 여겨질 때, 자유로운 표현에 위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채증 영상 속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그 관리와 활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경찰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채증 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경찰개혁 권고안 등을 반영하여, 채증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필요 없는 자료는 집회 즉시 폐기하도록 절차를 강화해 왔습니다. 채증의 전 과정은 정당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두 소중한 가치를 함께 지켜 가야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조화의 과제입니다. 채증은 이를 위한 소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집회 문화의 기반을 다지는 공공의 노력입니다.

경찰의 렌즈가 국민의 시선을 의심이 아닌 신뢰로 마주할 수 있는 사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민주 공동체의 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모습입니다. 구레경찰서 경비안보과 순경 문가원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음력 6월 20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lucky/unlucky days and advice. Includes icons for each sign and text in Korean.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Expressway Authority. Features a large hand graphic, logos for 'ex 한국도로공사' and '500 경부고속도로 50주년', and text: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